

광주 곳곳에 '맨발로'...매뉴얼 없어 관리 부실 우려

지역 57곳...1곳당 조성 비용 1천100여만원-1억여원 향토 특성상 잦은 보수 필요...“행정적 근거 마련해야”

광주 각 기초자치체가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맨발로를 조성했지만,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없어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관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내 곳곳에 맨발로를 조성하거나 추진 중이다.

서구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2022년 12월부터 금호1동, 금호2동, 농성1·2동 등 14개동에 걸쳐 사업비 총 14억7000만원을 들여 맨발로 18개를 설치했다. 각 맨발로는 최소 20m에서 최대 3.4km까지 다양하며 맨발로 1개당 조성 비용은 평균 약 7천816만원이 들었다. 북구와 광산구도 지난해 9월부터 맨발로를 추진해 각각 8개, 22개를 마련했다.

북구는 오룡동, 매곡동, 문흥동 등 6개동에 최소 50m에서 최대 1.2km 길이의 맨발로를 조성했다. 총 사업비는 3억6천400만원으로, 맨발로 1개당 평균 4천5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광산구는 수완동, 침단2동, 신창동 등 12개동에 2억5천700만원을 들여 50m-3km 길이의 다양한 맨발로를 만들었다. 맨발로 1개당 조성 비용은 평균 1천168만원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지난해 12월부터 3억1천만원을 들여 봉선2동, 행암동, 효덕동 등 4개동에 110m에서 1km에 이르는 맨발로 6

개를 설치했다. 맨발로 1개당 평균 약 5천166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동구는 올해 2월부터 산수동, 지원2동, 서남동 등 3개동에 110-140m 길이의 맨발로 3개를 조성했다. 사업비 총 3억2천300만원이 소요돼 맨발로 1개당 평균 약 1억766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문제는 맨발로에 깔린 황토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한꺼번에 많은 비가 유입되거나 자주 내릴 시 유실되고, 건조한 날씨 속에선 메말라 걷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를 제외하면 모두 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다.

이 탓에 자치구 대부분 맨발로 관리 업무를 맡는 직원이 비정기적으로 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점검, 북구에 나서는데 일회성 정비에 그쳐 이용자들 사이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이모(58·여)씨는 “지난해 맨발 걷기 붐이 일면서 맨발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비가 내린 뒤나 무더울 때 가면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며 “기껏 조성한 맨발로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자치체가 유행에 따라 선점적·경쟁적으로 맨발로를 조성하기에 앞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전남 제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은봉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걷기 좋은 길’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맨발로 이용자의 안전대책 마련 관련 조항 신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주성학기자

“특전사회와 공동선언 폐기하겠다”

5·18 부상자·공로자회, 사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이하 오월 공법2단체)가 ‘2·19대국민 선언’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며 분골쇄신의 자세를 다짐했다.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주의문 앞에서 5·18 공법단체가 ‘2·19 대국민공동선언 폐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주성학기자

오월 공법2단체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주의문 앞에서 “지난해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 그리고 어리석음을 깊이 사죄드리며 특전사회와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관계자들도 참여했으며, 오월 공법3단체장은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의 큰 절을 올렸다.

이 중 공동선언을 주도했던 오월 공법2단체는 “2·19 대국민 선언”은 계엄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역사 왜곡이고, 광주 시민에 대한 배반이었다”며 “앞으로 오월 문제는 광주 시민들과 함

께 의논해 나가며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오월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2·19 대국민 선언 폐기를

환영한다”면서 “시민사회 역시 진실규명, 명예회복 기념과 기억을 위한 투쟁에 기꺼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오월 공법2단체는 전남 광주 남

구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지난해 ‘2·19 대국민 선언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형미 관장 퇴진 집회 등에 대해 사죄했다. /주성학기자

5·18재단, ‘왜곡 현수막’ 건 자유민주당 고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상 허위 사실 유포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 왜곡 현수막을 게시한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을 고발했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남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허위 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

의로 자유민주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광주시가 함께한 고발장에는 자유민주당이 ‘관영해 (전)안기부장, 5·18에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 가짜(스타데일리 특종보

도)’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수막이 걸린 곳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시민 학살이 자행된 주남마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념재단은 지난달 27일 광주

도심가에 5·18 왜곡 현수막을 건 가가호호공명선거대안당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기념재단이 고발한 두 정당 모두 같은 왜곡 표현을 사용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명시된 대정부 권고사항 이행 계획과 조치 결과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신생아 출산 후 번기에 버린 뱀 ‘징역 10년’

법원 “인륜 저버린 행위 엄벌 불가피”

신생아를 출산 후 번기에 버려 죽게 한 친모에 대해 법원이 살인보다 형량 이무거운 아동학대살인으로 처벌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 5월22일 임신 29주차였던 A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번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를 낳았던 곳이 아닌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겼고 이후엔 아무 일 없게 둔 뱀자친구와 영화를 봤다. 범행 5일 만에 붙잡힌 A씨는 과거에도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가려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이를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으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A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배관 잘려도 가스 안 나와” 실험해 본 50대 재판대에

검, 징역 1년 구형...내달 25일 선고

잘린 가스 배관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 직접 확인에 나선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1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지인의 집인 광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잘라 거주민들을 폭발 등 사고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씨는 공사 현장 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른 방송을 보다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았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논쟁이 벌어지자 A씨는 가스배관을 잘랐다. 이 행동으로 실제 폭발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스 일부가 유출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스 유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반문하자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결심까지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진행된다. /안재영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